



₩ 제1절 외환위기 이후의 시대상황

1. 정치상황

김종필과 연합한 김대중이 제15대 대통령이 됨으로써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김대중정 부는 IMF구제금융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재벌· 금융개혁 수단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빅딜'정책을 추진하였다.1) 한편, 2000년 6월에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ㆍ15 남북공동선언' 등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대북지원정책을 통하 여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실정과 인사비리, 각종 권력형부정부패 등으로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에서 2년여 동안 DJP 연립을 구성했던 민주당과 자민련이 모두 패배하고 야당인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었으며, 2002년 6월의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참패하였다. 결국 2003년 2월 24일,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어 '3김시대'가 막을 내렸다.

2002년 3월부터 6월까지 우리 나라 정당사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국민경선'에서 새천년민 주당의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노무현이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 이어 2004년 3월 12일, 현정사에서 초유의 대통령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국민들의 전폭 적인 지원으로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였다.

노무현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대북 경제협력ㆍ교류정책을 추진하였다. 또 분배중시원칙에 입각하여 부동산투기억제, 경영투명성제고 등 기업지배구조 에 대한 규제강화, 언론개혁을 통한 권언분립, 자주국방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한·미 FTA 추진·타결, 한·칠레 FTA 체결, 한·EU FTA의 추진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다자 간 협상을 적극 시도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과 일부언론과 갈등, 비전문가를 동원한 어설 프고 조급한 정책추진으로 국정실패가 잦은 노무현정부에 대한 깊은 실망감은 경제정책의 중 요성 재인식 내지 경제성장·경기회복의 범국민적 욕구로 집결되었다. 'BBK의혹', 불법적 재 산은닉, 탈세 등 끊임없이 계속된 비판여론과 구설수에도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7대

¹⁾ 허영, 한국헌법론(전정3판), 박영사, 2007, 128~130쪽 참조.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2008년 4월 9일에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의 과반의석(153석)을 확보하였다.

2. 외환위기 이후 경제

IMF구제금융사태 이후 김대중정부의 경제위기극복방안은 초기외환위기를 극복하려는 초 단기적 대응방안과 4대부문 경제개혁정책(금융, 기업, 노동, 공공)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초래 된 기조변화는 저금리기조의 정착,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 중심체제로 이행, BIS의무비율 준 수강요에 따른 기업부채비율 감소, 노동시장 유연화, 대기업 지배구조 변화, 개방화 가속에 따른 경쟁격화와 소유·경영 인식변화, 지식·정보산업 부상, 시장중심체제 전환 등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확대 등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글로벌스탠더드와 기존 스탠더드 가 혼선되었는데, 정부주도에서 민간시장주도로 전환하는 것이 순조롭지 못하여 도덕적 해이 와 집단이기주의 표출, 리더십실종 등 새로운 발전모형이 정착되지 못하였다.

한국은 2001년 8월 23일에 IMF지원자금을 완전 상환하여 IMF체제에서 탈피하였으며, 주 요경제지표들도 IMF체제 이전 수준을 회복 또는 상회하였다. 경제성장률은 1997년 5.0% 수 준에서 1998년 -6.7%로 급락하였으나, 1999~2001년에 연평균 6.5% 수준으로 회복되고 주 가・금리・환율 등 금융지표도 상당 수준 회복되고. 외환보유고는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0년 말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부실처리가 지연되었으며, 공적자금 상환 등 불 안요인이 상존하였다. IMF프로그램과 정부대책은 외환확충, 구조조정 등의 성과를 내었으나 과도한 개혁속도, 국내현실과 부적합성, 성장잠재력 약화 등 악영향도 유발하였다. 4대부문 구조개혁은 외형적으로 성과를 거두었지만, 자율적 구조조정이 미진하였고 질적 개선이 미흡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이 미흡하였고 다른 부문의 개혁 또한 정 부주도로 진행되어 신관치경제시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제위기의 근원적 요인인 중앙집권 적 관리경제체제(CME)의 실질적 완화문제는 요원하여 구조개혁은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넘어가는 과정이 순조롭게 정착되지 못한 가운데 무리하게 추진되어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3. 외환위기 이후의 노동운동

IMF는 긴축정책과 구조조정, 개방화, 국·공유기업 사유화 정책과 1998년 2월까지 정리해고 법제화. 근로자파견법 제정 등을 요구하였다. 김대중이 'IMF체제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구 성을 제의하자, 치열한 논의 끝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2월 9일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잠정 합의하였다. 2월 9 일에 민주노총 제1기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재교섭 요구, 노사정위원회 불참, 국회 강행처리 시 즉각 총파업 돌입'을 결의하였으나, 총파업 투쟁은 성사되지 않았고 2월 13일 의 임시국회가 정리해고를 법제화하고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하였다.

1998년 3월 31일에 '노사정위원회 불참, 정리해고 · 파견제 철폐, 민주노총 혁신'을 내걸고 민주노총 제2기 지도부가 출범하여 5월 20일에 정리해고ㆍ파견제 철폐, 임금삭감 없는 노동 시간단축을 중심으로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 쟁취를 위하여 5~6월에 총파업을 기본으로 하 는 총력투쟁을 배치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정리해고 • 파견제 철폐,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 등한 협상기구로서 위상, 재벌해체 등 4가지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사정위원회에 불 참하기로 하였다. 이후 1999년 2월에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최종 의결할 때까지 자본과 권력 의 구조조정 공세는 거침없이 자행되었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정합의를 거쳐 노사정 위원회 참가와 철수를 되풀이하면서 저항하였다.

그러나 임금동결과 임금삭감이 성행하고, 고용과 임금 중 택일하라는 자본공세는 갈수록 가중되었으며, 노동자투쟁은 격해졌다. 1998년 6월 금융노조 총파업 이후 계속되는 기업노조 의 파업투쟁과 2001년 5월 이후 민주노총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및 김대중 정권퇴진 투쟁' 등이 이어졌고 민주노총은 해마다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맞섰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상을 통한 위기탈출을 시도하였지만, 금융산업과 공공부문 민영화 등이 강행되자 정책연합을 파기하였다.

외환위기는 빠른 시기 안에 모면하였지만, 자본의 노동에 대한 구조조정 공세는 일상화하 였고, 노동시장은 유연화가 범람하였다. 대량실업의 위험이 상존한 가운데 정규직노동자는 고 용불안과 노동강도의 강화로 위협받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빈곤과 차별로 극심한 고통에 처 하였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사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만, 권력과 자본의 억압에 고통이 가중되었고, 기본적인 방어망이나 사 회안전망이 없는 가운데 방치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분신투쟁으로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였 다. 노동조합운동은 현장조직력 무력화, 지도력 약화, 대중투쟁 위력상실뿐 아니라 운동의 통 일성, 연대성에도 심대한 취약성을 나타냈다. 그 결과 노동운동의 위기론이 조직 안팎에 제기 되었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들이 '노동운동의 혁신'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경주되 었다. 민주노총의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와 한국노총의 '21세기위원회'는 이러한 요구에 부 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동운동의 혁신과제는 기업별노조체계의 타파와 산별노조의 건설, 노동운동 이념 재정립,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조운영 개혁 등으로 집약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산별노조 건설 운동이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민주택시노조, 사무금융노조, 대학노조 등에서 진전되어 결실을 거두었고 한국노총은 금융노조, 택시노조 등에서 산별노조로 전환되 었다. 특히 금융노조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사상최초의 총파업을 통하여 산별노조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노동자정치세력화도 지자체 선거 진출을 늘려 가는 한편, 2004년 4 · 15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물론 신자유주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과 임금소득 불평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노동운동은 여전히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자본과 권력의 노동운동 고 립화를 위한 공세도 갈수록 거세지고 노동자계급 내부로도 연대의 기반이 허물어져 노동운동 의 사회적 고립 또한 심해졌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성공과 패배, 도약과 침체를 거듭하면서 성장 발전하였다.

4. 외환위기 이후 노동법제의 새로운 변화

1) 국민의 정부(1998~2002년)의 노동입법

'노사정위원회'가 1998년 1월 15일에 발족하여 2월 6일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1998년 2월 14일에 이 협약의 후속조치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 제정하였다. 이러한 노동관계법의 제ㆍ개정은 정리해고제도의 즉각시행과 노동자파겨법 시행 을 통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이로 인 하여 발생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제를 강화하였다(이하 2・6 대타협). 아울 러 2 · 6 대타협의 후속조치로 이 해 10월 31일에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2월 24일에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워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999, 1, 1,부터 시행)이 제정되 었으며, 1999년 1월 29일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999. 7. 1.부터 시행)이 제정되었다.

아울러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해지는 추세에 따라 실 질적인 남녀 간의 고용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과 2001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 였다. 또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는 사업체 규모, 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즉, 1999년에 법을 개정할 때 상시노동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으로 확대한 뒤, 2000년에 법 을 개정할 때에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거나 가사사용인의 경우를 제외한, 노동자를 사 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에 대해 전면 적용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퇴직금 최우선변제제도에 대한 19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결정에 따라 노동기준법 개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외 환위기 이후 폭증한, 기업이 도산할 때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8년 2월에 '임금채권보장법'을 새로 제정하고 이를 2000년에 대폭 개정하였다.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 즉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1998년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은 상대적으로 소폭이었다. 그러나 2001 년에 중요한 법을 개정하였다. 즉, 1998년 3월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단체협약 위반 의 구체적 유형을 여섯 가지로 한정하였다. 또 현실적인 준비상황의 미비를 고려하여 사업장 단 위 복수노조 설립에 관하여 적용되는 유예기간과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단일화 방법, 절차제정 에 관한 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시 5년간 연장하였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을 위한 현실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음을 고려하여, 이미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하는 노동자 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지원금지 규정에 대하여 적용되는 유예기간도 2006년 12월 31일까 지 5년간 연장하였다. 동시에 일반노동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원노조의 경우에도 복수노 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요구 가능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였다.

2) 참여정부(2003~2008년)의 노동입법

참여정부가 가장 먼저 제정한 노동관계법은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년 8월)이다. 이 법은 내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기회보호의 원칙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체계적으 로 도입함으로써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의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노동자로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 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어 2003년 9월 15일,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동기준법을 개정하였는데, 이것 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정노동시간을 주40시 간으로 단축하고 노동시간과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2005년 3월 31일에 다시 추진된 근로기준법 개정은 임금체불의 예방, 체불임금의 조 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되 형사처벌제도는 합리 적으로 개선하고, 모성보호 관련조항을 대폭 보완하였다.

1998년 2·6 대타협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는 2005년 1월 27일 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 이는 헌법 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 교섭,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사회적 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같은 날 기존의 노동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던 퇴직금 관 련조항을 모두 모아 '노동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고 새로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3) 노사관계 선진화입법

참여정부가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노동관계법을 종합적으로 수정 · 보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투쟁적·대립적 노사관계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함으로써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노사관계법·제도도 보편 적인 국제노동기준(Global Standards)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적 지 않았으며, 노동자보호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ㆍ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에 참여정부의 노사개혁 프로그램인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34개 과제, 이하 '선진화방안'이라 함)」이 마련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노사정위원회는 구체적 인 논의를 추진하였으나. 진전 없이 논의시하이 종료되어 2005년 9월에 이르러 선진화방안을 정부(노동부)에 일괄 이송하고 말았다. 그리고 2005년 11월 여당,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선진 화방안 중 24개 과제를 입법 추진키로 하였으나, 이후 비정규직법안의 처리 이후로 추진을 연 기하기로 결정하였다(2006년 1월, 고위당정간담회).

한편, 2006년 3월 15일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개하여 선진화방안 34과제에 대해 논의키 로 결정하고, 전체 논의과제 중 복수노조 • 전임자 문제 등 핵심 9개 과제를 제외하고 25개 과 제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되었다. 또한 2006년 9월 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과 경 총·상의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의 적용을 다시 5년 더 유예하기로 전격 합의함으로써 선집화방안의 입법작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 였다. 결국 2006년 9월 11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대표자들은 4개월여 동안의 논의를 종결하여 선진화방안에 대해 대타협을 도출하고,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노사정 사이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2006년 11월 7일, 정부(노동부)가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6년 12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일부 수정·의결하여, 12 월 21일, 법안심사위원회를 거쳐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선진화입법의 주요내용은 먼저 노동기준법에서 노동자보호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 노사관계는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는 동시에 공익보호 를 강화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규정의 시행을 3년간 추가 유예하였다.

4) 비정규직 보호입법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노동자대책특별위 원회'가 구성되어 2년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노사 간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하고 2003년 7월,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노동부로 이송하였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입법예고,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비정규직 보호관련 입법안을 2004 년 11월 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비 정규직법안에 대해 '비정규직 고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노·사·정 간에 논란이 가열되었다. 결국 2006년 2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수정 • 의결하고, 법안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리고 시행시기를 2007년 7월 1일 로 의결하였다. 비정규직노동자 보호법안은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시정, 기간제노동 자의 남용방지,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초과노동의 제한과 파견노동자 보호강화 및 합리적 활 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제2절 노동사목위원회의 재도약

1. 종로시대의 변화

1) 용동진 신부 위원장 취임과 전문위원회의 활성화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이ㆍ취임식

1999년 3월에 용동진 신부가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이 되었 으며, 도요안 신부는 노동사목회 관 관장으로 용동진 신부를 계 속 도와주었다.2) 1999년 11월 18일에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들 과 2000년 대희년 정신에 적절 히 응답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하였다.3) 교회의 사회교리



용동진 신부

연구뿐 아니라, 사회 · 경제 ·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가들의 정확한 사회분석을 접목하여 노동사목 방향을 설 정하고, 주교들이 노동문제를 정확히 판단하게 하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를 활성화하였는데, 전문위원회의는 노동사목의 장・단기 사목계획을 세우고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4)

이에 따라 2000년 2월 23일에 노동계현황을 논의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심포지엄을 준비하였으며, 5월 17일에 비 정규직 심포지엄을 평가하였다. 7월 15~17일에 구조조정

²⁾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9년 2월 25일자.

³⁾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9년 11월 18일자.

⁴⁾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2004년.

과 비정규직 문제로 불거진 롯데호텔사태 등 당시의 사회현상들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 고, 2000년 12월 1일에 IMF의 제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정리하였으며, 교회 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였다.5)

2) 경제난국과 교회의 대처

1997년 말의 아시아 경제위기(한국에서 소위 IMF사태)는 국민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초래 하였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제대로 이해하는 국민 들이 적었다. 이 경제위기는 거의 모든 사업장의 일거리를 감소시켜 임금대폭삭감, 인원삭감, 새 일자리 부재 등 노동조건이 급격히 나빠졌다. 한편, 그 시기에도 흑자를 내던 기업 중 임 금삭감. 정리해고, 무급휴가를 강요하며,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곳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들은 방관하였다.6)

많은 가정들이 붕괴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국가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교회 는 모든 고통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국민 모두 분담하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 책을 「현 경제난국과 IMF 구제금융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통하여 촉구하였다.8) 또한 1998년 2월 23일, 서울대교구 2000년대복음화사목국 사무실의 임시회합에서 우선 교회 가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즉, 지구별로 쉼터를 마련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본당 은 실직자가정을 파악하여 부모가 능력이 없어 자녀들을 시설에 위탁하지 않도록 공부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학재단을 마련하여 학자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고하여 지역단체, 구청을 통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서울대교구 사제총회에서 구체 화하기로 하였으며, 2000년대복음화사목국 명의로 「실업문제와 교회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서울대교구 사제총회에 제출하였다.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롯데복지재단이 기증한 컴퓨터 6대(10.200.000원 상당)를 기 반으로 노동사목회관에서 실직자재취업교육을 시행하였다. 즉, 컴퓨터의 기본적인 조작법과

⁵⁾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전문위원 회의록 2000년 2월 23일자(제1회).

⁶⁾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8년 3월 5일자.

⁷⁾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8년 5월 7일자.

⁸⁾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8년 3월 5일자, 부록 3에 전문 수록,

⁹⁾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8년 3월 5일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소장, '서울대교구 쉼터운영 본당과 운영 계획 본당' 문건 참조.

컴퓨터에 대한 이론,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실무를 습득하게 하여 워드프로세서 1급・2급・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기간은 1998년 4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3개월이고. 인원은 20~30명에 수강료는 3개월에 3만 원이었다.10)

3) 평화의 집 운영

명동대성당이 '축성 100주년 명동성당 평화의 집'(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취업정보, 재취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노동사목위원회에 실무자를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이태균을 평화의 집 취업정보센터 상근자로 임명하여 실무를 맡겼으며11), 가톨릭회관 지하에 마련된 평화의 집에서 실직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상담과 재취업에 필요한 컴퓨터수 리조립교육, 조리사교육, 창업교육, 인성교육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12)

1998년 9월, 명동 평화의 집에 약 1,500여 명이 등록되었으며, 1일 이용자는 약 150~160명 정 도로 이 가운데 '취업상담실' 이용자는 전체의 약 30%로 추정되었다.13) 1999년부터 효율적인 교 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내담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실업자들에게 가장 급한 것은 새로운 일 자리이지만, 경제공황이 지속되는 한 실직자가 존재하고 경제공황 이후에도 사회계층의 한 부분 으로 남을 것으로 예견되어 실직상태에서 잃기 쉬운 인간성 확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였다.14)

그러나 명동 평화의 집은 1년 단위로 장기목표를 세울 수 없고, 교회기관을 믿고 구인을 의뢰 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자의 신분을 보장하여 줄 수 없으며, 노숙자들의 식사와 잠자리 제공 등 평 화의 집 운영전반을 신경 써야 하므로 상담을 비롯한 실직자 문제해결에 전념할 수 없었다.15) 평 화의 집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들에게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하자 사용인원이 급 격하게 줄어들어 문을 닫았다. 한편, 1999년 3월 19일에 구로본동, 구로3동, 시흥동노동문제상담

¹⁰⁾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실무자 회의록 1998년 2월 14일자.

¹¹⁾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서울대교구 총대리 김옥균 주교에게 보낸 1998년 3월 6일자 공문과 첨부자료 '실 업자 취업정보 사무실 운영비(안)' 참조.

¹²⁾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에 보낸 공문 1998년 5월 16일자.

¹³⁾ 이용자가 적은 원인은 일자리가 알선되지 않고, 적임자를 연결하기 어려워 효과가 적은 것에 기인하였다. 당시 노동부 취업정보망은 24시간 정도 늦게 출력되어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통신정보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가톨릭 기관 쉼터, 희망의 집 실무자 회의록 1998년 9월 28일자.

^{14) 1999}년 평화의 집 교육 및 행사에 관한 기획안.

^{15) 1}일 80~100명의 평화의 집 출입자 중 약 5%인 5명 미만이 취업상담을 하였는데, 상담은 취업정보 확인(노동 부, 민간 취업정보제공기관의 전산망 이용) 및 일자리 문의와 교육, 기타 직업에 관한 상담 등이었다. 서울대교 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2000년.

소를 통합한 남부노동문제상담소와 구로 평화의 집의 축성미사와 개소식을 최창무 주교가 집전 하였으며, 노동문제 상담 외에 실직자들의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16)

4) 가정의 날 축제



가정의 날 축제

1998년 서울대교구장의 사목지침을 따라 6월 7일에 노동사목위원회 사도직단체인 어린이사 도직,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장년회등과 사제단, 수녀단 등 300여 명이 돈보스꼬청소년 센타에서 '가정의 날'행사로 성대한 축제를 거행하였다. 먼저 주제인 '가정'에 맞추어 각 단체 별로 질문지를 준비하고¹⁷⁾,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 어린이·청소년들

^{16) &#}x27;제7절 노동문제상담소' 참조.

¹⁷⁾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8년 3월 5일자. '가정의 날' 행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려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담당자들은 IMF사태로 인한 위기상황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경제난으로 인한 임금체 불과 실직이 초래하는 부부싸움과 이혼, 이로 인한 가정파괴와 자녀들의 시설위탁 등의 연쇄사태가 광범위하고 급 속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8년 5월 7일자.

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뒤에 행사를 거행하였다. '가정의 날'행사는 개막미사와 '가정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나눔' 발표로 진행하고. 점심식 사 뒤에 노동사목위원회의 단체들이 모여 어울림마당(체육대회 등) 등을 거행하였다. 행사 당 일 참석인원이 예상 밖으로 많아 미사 장소가 좁을 정도로 성황이었으며, 슬라이드 상영, 어 린이부터 할아버지까지 함께 하는 포크댄스, 모래주머니 던지기 등을 하면서 단체별로 연대 하는 모습을 보였다.

5) 실업극복지원사업과 동부근로청소년회관 위탁시설

1999년 1월 20일에 용동진 신부와 도요안 신부가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을 방문하고 실 업극복 제안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실업극복국민운동의 3차 공모에 '실업극복 5가지 제안 서'(컴퓨터 정보처리 교육, 컴퓨터 조립과정 교육, 봉제교육, 외국인노동자 쉼터이용자 확대, 고용 지원과 쉼터운영)를 접수하고, 1999년 2월 23일에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실무자가 노동사목위원 회를 방문하여 실사까지 하였으나, 5가지 제안사업 중 일부만 선정되자 이 사업을 맡지 않았다. 노동사목위원회는 동부근로청소년회관 수탁시설에도 지원하였다. 면목동의 동부근로청소년회 관은 1993년에 여성노동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교육기능을 하는 회관으로 설립하여 교육, 문화, 교양활동지원, 청소년상담 등을 주로 하였다. 1999년 3월에 서울시가 청소년시설 수탁단체의 선 정계획을 발표하자, 노동사목위원회는 5월 18~19일에 개최된 동부근로청소년회관 위탁시설 운 영에 관한 설명회에 참석하고, 청소년시설 수탁단체에 선정되기 위하여 1999년 6월 4일에 동부근 로청소년회관 수탁추진계획안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명의로 제출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다.

6) 연구・출판

노동사목위원회는 1993년 상반기부터 계간지 『월별 노동계 상황』을 발간하였으며, 1994년 7월의 제5호부터 『평화는 정의의 실현』으로 제호를 변경하였다가 1995년 2월의 제6호부터 『 노동계 소식』으로 다시 돌아갔으며. 1996년 3월의 제7호부터 『땅을 일구는 사람들』로 변경하 여 1998년 1월(제9호)까지 발간하였다. 이어 1998년 제10(봄)호부터 『하느님·사람 그리고 노동』으로 바꾸어 2002년 7월(제21호)까지 발간하였다. 이 계간지는 노동계소식, 정보전달이 라는 소식지 형태에서 벗어나 잡지의 형식을 갖추었다. 즉, 사회교리,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계간지

한 교회 사람들의 전기, 다시 보기란, 돋보기란 등을 마련하여 정보교류, 노동현안에 대한 교회 의 입장과 주어진 현안에 대한 객관적 자세, 태도 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의 잣대 역할을 하 였으며, 독자층은 사제들과 노동사목에 관심 있 는 신자들이고, 발간목적은 노동사목위원회의 활 동을 알리는 것이었다. 또한 지로용지를 동봉하 여 후원회원들이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데 용이하 게 하였다.18)

1998년 3월에 21세기 아시아 교회 콜로퀴움에서 발표된 『경제세계화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 (Economic Globalization: Implications for the Church), 4월에 『가톨릭 사회교리란 무엇인가?』

(Cos'è la DSC)를 번역하였다. 이어 6월에 『회칙 새로운 사태와 오늘』(La Rerum Novarum oggi), 『교회가 가르치는 노동의 의미-노동의 다양한 측면』(Diversi aspetti del concetto di lavoro), 『캘 커타의 마더 데레사』(Madre Teresa di Calcutta), 『하느님의 평화의 도구』(Instrument of God's Peace), 『시장이 결여하고 있는 것들』(The shortcomings of the market),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위한 방편들, 그리고 그에 대한 윤리적 권고』(Moral Imperatives for addressing Structural Adjustment and Economic Reform Measures) 등 많은 문건들을 번역하였다. 9월에 주교회의 정 의평화위원회의 보고서 『대량실업과 사회안전망 확충』,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서적에서 발췌 · 번 역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교회』, ILO 보고서 관련기사 『언제 끝날 것인가?』(When will it end?), 『가노청 순교복자 마르셀 갈로 전기』 등을 번역 · 발간하였으며, 10월에 교회가 가르치는 노 동의 의미인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비춰본 노동의 의미』(Senso del lavoro alla luce della fede cristiana)와 『보조성의 원리』(Il Principio di Sussidiarietà)를 번역 · 발간하였다.

1999년 2월에 『연대성의 원리』(La Solidarietà), 3월에 『노동윤리의 중심: 노동의 목적은 인간이다』(Punto centrale dell'etica del lavoro: il fine del lavoro è l'uomo), 5월에 『국 제노동기구(ILO)의 산업재해 보고서』, 『재화의 보편적 목적』(La Destinazione Universale

¹⁸⁾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8년 9월 17일자.

dei Beni), 6월에 『노동의 의무와 휴식의 필요성』(Rapporto tra dovere di lavorare ed esigenza di liberazione dal lavoro nel <riposo>)등을 각각 번역하고 그 달에 「주한외국 인(필리핀)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7월에 아티클 「한국 가톨릭교회 의 노동운동 참여,를 작성하였다. 이어 11월에 평화의 순례자 「교황 카롤 보이티와」, 12월에 「공동선의 원리」(Il Bene Comune)를 번역하였다.

2000년 1월에 노동자들의 대희년 기념 비정규직 노동 실태조사를 하였고, 3월에 이 설문조 사 결과를 분석하였고, 같은 달에 로마 노동계 대희년 준비위원회가 펴낸 『만인을 위한 노동: 연대와 정의의 길』(Work for Everyone: The Way of Solidarity and Justice), 5월에 『가 톨릭 사회교리와 무역』(Catholic Social Teaching and Trade)을 번역하고, 6월에 심포지엄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8월에 가톨릭노동청년회 국제협의회(CIJOC) 회칙, 기본원칙선언, 정관 과 기타 국제총회 관련문건들과, 『교회와 노동운동: 그 기원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Chiesa e movimento operaio: un percorso storico dalle origini al Concilio Vaticano II)를 번역하였으며, 10월에 『성서와 노동: 구원의 성서 메시지에 나타난 노동의 소외와 해방 (Bibbia e lavoro: alienazione e liberazione del lavoro nel messaggio biblico della salvezza), 『사회교리와 노동: 교회의 사회 가르침에 나타난 노동, 노동자, 노동자들의 연대』 (Dottrina Sociale e lavoro: lavoro, lavoratori e solidarietà dei lavoratori nel Magistero sociale della Chiesa)를 각각 번역하였다.

7) 교육 활성화

노동사목위원회는 1998년 2월부터 월례회의 때 실무자들이 『백주년』을 공부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요안 신부와 배존희(裵存熙, 스테파노, 1967~) 신부가 노동자들을 주 대상으로 예비신자교리를 시작하고19), 노동사목회관에서 노동법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1999년은 매월 주제를 바꾸 어 주요과제를 연구하였는데, 1월에 이건의 사회교리, 2월에 실직자와 만남, 3월에 가톨릭노동장 년회 회원과 만남, 4월에 실무자 사례나눔, 5월에 박희자 수녀의 탈북자 상황, 6월부터 전교 가르 멜 수녀 총무활동 등이었다.20)

¹⁹⁾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9년 2월 25일자.

²⁰⁾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9년 5월 27일자.



노동문화상 시상식

1999년 10월 8일에 용동진 신 부가 교리신학원 학생들에게 노 동사목을 소개하였고, 11월 11일 에 도요안 신부가 고려대학교 노 동대학원 노동문화상 '노동복지' 부문을 수상하고 같은 달 30일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주최한 '전임자 임금 지급' 세미나에 참 석하였다.

2000년 2월 23일에 비정규직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노동계현황을 나누었으며, 3월 17일에 '사도직단체의 나아갈 길, 상호 활성화 방안', 7월 15~17일에 '현 사회현상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5월에 한국ILO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용동진 신부와 도요안 신부가 참석하고, 7월 9일에 주한교황대사관이 개최 한 '현 경제사회문제 토론'에 도요안 신부와 박영기 교수가 참석하였다. 9월 26~30일에 우체 국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위탁교육에 손창희 교수와 김재훈 박사가 개별 근로관계법, 집단관계법 등을 강의하였다.

8) 외국과 교류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소장 박영기 교수가 학술모임으로 만든 '아시아 소시얼 포 럼'(Asia Social Forum)은 노동조합에 직접 관여하는 이들이 참여하여 일본, 타이완, 한국, 일 본, 중국, 한국, 타이완 순으로 개최하였다. 1998년 2월 12~15일에 '고용에 있어서의 정의'라 는 주제로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이 모임에 도요안 신부, 용동진 신부가 참석하였다. 사회 개발에서 아시아가 위기를 맞은 것은 인간의 개발로 자연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남녀고용평등문제는 각국의 공통점으로 일본, 타이완은 주변노동자, 시간제노동자 등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많이 다루었다. 타이완이 원주민 차별문제, 한국은 출신과 학력차별에 대한 문제들을 우선시하였으며,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정리해고 상황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21)

²¹⁾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8년 3월 5일자.



Asia Social Forum(베이징)

1999년 9월 11~16일에 '세계 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Social Asia Forum'에 용동진 신부, 도요안 신부가 참석하였 다. 세계화는 노동관계, 노동조 합에 어떤 영향을 주고, 각 나라 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거시 적 · 미시적 측면으로 발표하고 문제를 교환하였다.22) 2000년 9

월 28~30일에 '아시아 사회적 공정과 시민사회와 NGO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 된 'Social Asia Forum'에 용동진 신부와 도요안 신부가 참석하였다. 이어 2001년 9월 26~ 30일에 타이완에서 개최된 'Social Asia Forum'에 용동진 신부가 참석하였다.

이밖에 1998년 8월 24~29일에 우리신학연구소가 주최한 '아시아 경제위기와 교회의 역할'에 관한 국제포럼에 도요안 신부와 용동진 신부, 실무자 등 11명이 참석하였으며, 9월 21일에 대구 가톨릭근로자센터가 주관한 독일 폭스바겐 노조지도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2000년 5월 1~11일에 도요안 신부가 필리핀 Euntes Asia Center(Zamboangs) 연수회에서 강의하였다.

방문교류는 1998년 7월 5~7일에 도요안 신부가 홍콩의 보좌주교와 노공사무위원회를 방 문하고, 9월 23일에는 홍콩 노공사무위원회 지도신부와 위원들이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를 방문하였다. 1998년 9월 18~21일에 용동진 신부가 대구에서 개최된 동아시아대륙회의(타 이완, 한국, 일본)에 참석하였다.

2. 노동자들의 대희년 행사

2000년 4월 30일의 노동자들의 대희년 심포지엄에 앞서 가톨릭노동청년회가 까르딘상담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통하여 청소년문제의 워인을 진단하고, 어린이사도직은 어린이들의 고충

²²⁾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9년 9월 17일자.

을 부모들이 동반하고 함께 하는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가톨릭노동장년회는 경제문제로 가정이 붕괴되고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이 방치되어 가정문제는 사회문제이며 교회가 안아야 할 문제임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사도직단체들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백서를 발간하는 방 안을 노동사목위원회가 제시하자?3), 대희년을 위한 '비정규직고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2000년



대희년 심포지엄

4월 30일에 발표하였으며, 「2000 년 노동자들의 대희년을 위한 우 리의 선언」도 선포하였다.24)

4월 30일에 노동사목회관 강당 에서 2000년 대희년 노동자들의 대희년 기념 심포지엄 '비정규직 의 빛과 그늘'을 개최하였다. 서강 대학교 명예교수인 서정호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는 '비정 규직 고용실태 조사'(이건), '상담

사례를 통해서 본 비정규직 실태'(이무술), '비정규노동자의 사람답게 사는 권리'(손창희ㆍ정영화), '새로운 고용형태?'(김어상) 등이 발표되었고, 권중동이 '비정규직의 세계적 흐름'을 찬조로 강연하 였다.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은 김영주(한국노총 금융노련 전부위원장), 문무기 박사, 서종성 위원 장(재능교사 노동조합), 조은상 박사, 주진우 정책국장(민주노총 정책2국) 등이 담당하였다.

한편, 같은 날 '한마음, 한뜻, 한가족…'이라는 주제로 동성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재한외국인 노동자 대희년축제'의 제1부는 동성고등학교 청소년회관 소강당에서 필리핀노동자와 지도자 들에게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동원 교수가 노동관계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후에 동성고 등학교 운동장에서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의 친선농구시합, 동성고등학교 청소년회관 대강당 에서 외국인노동자 전체가 참여하는 '찬미 찬양의 시간' 등으로 진행되었다. 제2부 미사는 동 성고등학교 청소년회관 대강당에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강우일 주교 주례로 봉헌되었 으며, 제3부 문화행사는 동성고등학교 청소년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2000년 5월 17일에 도요안 신부, 용동진 신부, 윤 데레스잔 수녀, 김어상 교수, 이건, 이무

²³⁾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9년 11월 18일자.

²⁴⁾ 부록 3에 전문 수록.

술, 김병근, 조선영 등이 심포지엄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즉, IMF 이후 고통을 받는 이 들이 많은 시기에 적절한 주제로 노동계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생 동감 있었다. 사회교리 측면에서 판단한 점이 짜임새를 높였으나, 노동에 관계된 이들만 아니 라 일반신자들까지 관심을 갖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25) 2000대희년 심포지엄을 마치고 이에 대한 자료집인 『비정규직 빛과 비정규직 그늘』을 2000년 6월 20일에 발간하였다.

3. 보문동시대

1) 노동사목회관 건립과 위원회 변화



회관 축성식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건물이 준공되자 2001년 5월 1일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鄭鎭奭, 니콜라

²⁵⁾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2000년 5월 18일자.

오, 1931~) 대주교 집전으로 축성식을 거행하였다. 이에 앞서 3월 17일에 노동사목회관과 노동 시목위원회 사무실, 3월 26일에 명동노동문제상담소와 외국인노동자상담소, 4월에 가톨릭노동 장년회 사무실을 각각 이전하였다. 베다니아의 집은 2001년 3월에 미아삼거리에서 보문동 노동 사목회관 뒤편 연립주택으로 이전하여 5월 8일에 강우일 주교 주례로 축성식을 거행하고, 베다 니아의 집이 있던 자리는 2001년 2월 15일에 러시아여성들의 쉼터인 벗들의 집을 개소하여 착 한 목자수녀회가 담당하였다.

과달루페회의 멕시코인 양진홍(Gerardo Cabral, M.G.) 신부가 자양동성당에서 남미노동 자들과 스페인어 미사를 봉헌하였는데, 파리외방전교회 홍세안 신부가 2001년 5월 23일부터 보문동노동사목회관에서 남미노동자들의 고충상담을 시작하고, 6월부터 동두천성당·금촌성 당 등에서 남미 노동자,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01년 9월 9일부터 보문동노동사목회관에서 매월 둘째 주일 11시에 미사를 봉헌하고, 혼인성사와 세례 성사도 집전하였다.

척박한 한국의 노동현실에서 노동조합을 올바르게 육성하고, 당대 노동현실을 정확히 분석 하고 교육함으로써 노동사목의 정립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소장 박영기 교수가 2001년 10월 29일에 선종하였다. 2001년 12월 4일에 허윤진(許允振 안드레아, 1966~) 신부가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겸 가톨릭노동장년회 서울대교구 지도신부로 부임 하였으며, 2002년 1월 24일에 노동사목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2) 최근 노동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

2001년 12월에 노동사목위원회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심각해 지는 빈부격차와 고용불안, 실업문제 등을 거론하고 가장 심각한 과제로 등장한 청년층의 실 업, 비정규직의 확산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성 명서 '최근 노동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26)

²⁶⁾ 부록 3에 전문 수록.

3) 후원기금 다변화



허윤진 신부

2002년 3월 5일에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허윤진 신부가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주수욱 신부가 노동사목회관 회관장으 로 각각 부임하였으나, 주수욱 신부가 2002년 10월에 이임하자 허윤진 신부가 회관장을 겸임하였다.

노동사목위원회는 교구예산과 도요안 신부의 국내외 독지 가 200~250명이 후원하는 기금으로 많은 일을 하였는데, 사목범위가 점점 확장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1996년에 노동사목위원회 창립 25주년 기념행사와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건축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후원회원의 범 위를 확대하였다. 이 후원회비는 요긴하게 쓰였으나,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신축에 따른 계약금마저 마련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지자 후원회를 확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명동 평화의 집을 개소할 때 롯데복지재단에 실업자들을 상담하기 위한 사무기기를 후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뜻을 이룰 수 있었으며, 이후 한마음한몸운동본 부, 사회복지회 공동모금과 기업들의 사회복지기금을 계속 지원 받았다.

2000년대는 사도직단체와 노동문제상담소 외에도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외국인공동체, 쉼터 등을 운영하였으나, 교구지원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 허윤진 신부가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에 취임한 직후부터 베다니아의 집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재조직하였다. 2002



후원기금 마련 생강즙 판매

년 4월 28일에 구리성당, 5월 26 일에 역촌동성당, 8월 17일에 우 면동성당 등에서 베다니아의 집 후원회 결성 미사를 봉헌하고, 6 월에 후원회 소식지 '두손모음'을 창간하였다.

2003년 7월 11일에 보문동 베 다니아의 집에 베들레헴 어린이 집을 개소하자 허윤진 신부가 베 들레헴 어린이 집과 베다니아의

집을 위한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2004년에도 베다니아의 집, 베들레헴 어린이 집을 위한 후원회 원을 모집하였다. 이 후원회는 2005년부터 통합되어 2005년은 압구정1동성당 등 12개 성당에서 후원회원을 모집하였다. 한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서산 에버그린농장의 정춘길(마태오)과 문미순(산티아)이 노동사목위원회에 농지를 제공하여 쌀ㆍ고추ㆍ감자ㆍ콩ㆍ마늘ㆍ깨ㆍ고구마ㆍ 땅콩 등을 재배하여 수확한 농산물과 이를 가공한 참기름 • 들기름 • 고추장 • 간장 • 생강즙, 된장 등을 판매하여 베들레헴어린이집의 이전비용과 수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2006년은 돈암동성당 을 비롯한 16개 성당, 2007년은 신천동성당을 비롯한 18개 성당에서 후원회원을 모집하였다.

4) 역할조정



서산농장

노동사목위원회는 사목목표인 '노동계의 복음화'를 구체화할 수 있는 주요시책을 노동계 안 에서 교회활동 연결・조정, 사도 직단체 확장·활성화, 노동사목 위원회 활동에 관한 정보ㆍ의견 교환, 노동계 문제에 대한 교회 의 응답과 대응책 식별 등으로 정하였다. 인재양성은 노동사목 수녀들의 연구와 연수회, 사제들

의 사회회칙 연구, 신학생 연수회와 현장체험, 노동관계 교육지원 등이고, 연구·출판사업은 시대상황에 따른 성명서 발표, 사회회칙 연구, 계간지 출간, 기타 자료집 출간 등이었다. 교육 사업은 사제·수도자·평신도들을 위한 사회회칙 워크숍, 노동법교실 수료생 후속프로그램 지원 등이었으며, 연대사업은 노동사목회관의 프로그램 지원과 활성화, 노동문제 상담서비스, 까르딘청소년상담소와 정보교환, 활성화 등이었다.27)

노동사목위원회 정기회합은 일곱 가지였다. 이주사목성직자모임을 2002년 12월부터 이주 노동사목에 관계된 수도자・평신도 선교사까지 함께 하는 월 1회 정기모임으로 확대하여 사

²⁷⁾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2004년.

회변화에 따른 안건을 토의하고, 교회의 대응방안과 단체별 활동사항을 토의하여 이주사목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미래방향을 설정하였다. 전문위원모임은 허윤진 신부, 도요안 신부와 평신 도 전문위원들이 사회교리를 연구하고, 사회·경제·노동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확한 사 회분석을 접목시켜 올바른 노동사목 방향을 설정하며, 주교들이 노동문제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하였고, 1998년부터 노동사목의 단·장기 사목계획을 수립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매월 1회 개최되는 실무자모임은 도요안 신부, 허윤진 신부, 정순옥 수녀와 실무자 1명 등 4명이 실무를 논의하였으며, 수녀분과모임은 매월 1회 허윤진 신부, 정순옥 수녀와 4명의 수 녀들이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사도직단체들은 매월 1회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임원·팀장들이 노량진사무실, 가톨릭노동장년회와 어린이사도직의 임원ㆍ팀장들이 노동사목회관에서 위원장 허윤진 신부와 함께 활동을 보고하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외국인사목봉사자모임은 매월 1회 상담실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중심으로 모였으며, 격주로 열리는 노동사목위원회 직원회의 는 허윤진 신부와 도요안 신부가 실무자들의 주간업무를 보고 받았다.

5) 전문위원 활동

① 교회 내 노동조합 결성문제

2003년부터 전문위원들이 교회직원들의 노동조합 결성시도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 였다. 교회지도자들도 이 문제를 근본적이고 정확하게 의식하고, 평신도들의 의사를 적극 고려 하려는 자세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28) 확대된 교회조직과 운영에 합당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만, 교회가 제시하는 '신앙에 기초한 노사관계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노동단체와 차별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우선 '대응방안'의 제시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교회지도자들과 면담하여 문제의식, 대안의 요청수위를 파악하는 한편, 노동사목위원 회의 의견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조정기회'가 필요하였다.29) 2004년 2월 14일에 개최된 전문위원분과 회의에 서울대교구 총대리 염수정 주교, 사무처장 최창화(崔昌和, 토마스 데 아 퀴노, 1943~) 몬시뇰, 관리국장 소윤섭(蘇潤燮, 요셉, 1955~) 신부 등이 동참하였다. 염수정

²⁸⁾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전문위원 회의록, 2003년 10월 11일자.

²⁹⁾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전문위원 회의록, 2004년 1월 10일자.



전문위원들

주교가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허윤진 신부에게 순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각 본당・병 원·학교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본당과 같은 사목중심 조직과 병원 • 학교 • 사회복지단체 같은 기능별 행정중심 조직은 조직·기능과 구성원들의 특성이 다르므로 양자를 분리하여 문제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도 달리 모색키로 하였다. 다만,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하여 각 구성원에 대한 역할과 사명 감 부여, 고용불안·대화부족·성과체계미흡 등의 문제는 공통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통해 양자 모두 일반사업장보다 교회정신에 충실한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세상의 모범이 되고 특히 교회에서 활동하는 각계인력들을 영역·분야별 특성에 맞게 분류하고 이를 지도할 수 있 도록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각종 교회조직의 노동운동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시각과 대응책을 교회가 갖춤으로써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사업기구들이 '인간존 엄성과 공동선'이라는 공통지향점에 충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였다.

본당 노동조합 문제는 '봉사' 개념의 강화와 의식전환이 요청되었다. 사무장은 '교리신학원' 을 마친 정도의 신앙적 바탕이 필요하며, '직원회의'도 신앙적 기능이 요청되었다. 본당은 노 동조합이 아닌 '노사협의회'적인 대화기구를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영·관리는 서울대 교구 시노드교서에서 제시된 바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본당은 사제 에 따라 고용불안과 근무환경이 좌우되므로 사무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능력개 발과 업무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교회사업기구의 노동조합은 '조직'과 '기능'이 우선시되어 일반 사회복지기구들과 차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 직원들은 대개 '신앙인 이전에 직장인'이라고 의식하는데도 비가톨릭 기관에 비하여 직원에 대한 채용방식, 근무조건결정, 교육·훈련 등 자질향상과 인적자원관 리. 노사관계관리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설정ㆍ적용되지 않았다. 관련전문기관 에 기초조사를 의뢰하여 각 사업기구의 의미와 역할 규명,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지원도 요청되었다.

교회의 각종기관에서 발생하는 노사관계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가톨릭정신에 부합하는 노 사관계 모델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준거 틀 부재, 성직자들의 인적자원 관리와 노사관 계에 대한 기본이해 부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안부재, 교구별・수도회별・사업별로 상이 한 대응에 따른 체계성·통일성 부족, 발생쟁점에 대한 무원칙·임기응변적 대응으로 인한 노사관계 파행, 성직자·수도자들과 일반직원들 간의 갈등, 중간관리자의 역할부재, 가톨릭 병원에서 장기노사분규로 인한 가톨릭교회의 이미지 저하, 노동조합 자체의 문제 등이 지적 되었다. 개선방향으로 가톨릭정신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종합적 이고 통일되게 대응하고, 유형별로 가톨릭전문가집단을 형성하여 각 사업종류별로 운영하고 상담하며, 중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제도와 마음자세를 개혁하며,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였다.30)

한편, 서울대교구 사무처의 노동사목위원회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요청에 대응하여 단계적 으로 당면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규정의 방향・구 조설계, 세부규정내용을 검토하기로 하였다.31) 2006년 12월에 서울대교구 사무처가 노동사목 위원회에 '인사노무 및 임금관리 시스템 개선'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자, 김정한 박사가 주로 담당하고, 전문위원별로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32) 이후 서울대교구 '인 사노무 및 임금관리 시스템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전문위원인 김정한 박사와 문무기 박사가 맡아 진행하여33) 가톨릭교회 정신을 구현하면서도 현실을 반영한 의견서를 작

³⁰⁾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전문위원 회의록, 2004년 2월 4일자.

³¹⁾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전문위원 회의록, 2004년 10월 9일자.

³²⁾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전문위원 회의록, 2006년 12월 9일자.

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서울대교구 사무처는 이 의견서의 상당부분을 수용하여 개정작업을 완 료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대교구 사제 • 수도자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사갈등의 근본원인과 대처방안에 대 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하였다.

② 『이주노동자 상담사례백서』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이주노동자상담실의 상담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ㆍ정리하여 상담실에 근무하는 이는 누구나 상담자료들을 유형별로 익혀 상담에 임할 때마다 손쉽게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 상담사례백서』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백서의 기본골격은 이주노동자상담실의 연혁과 활동개황, 상담활동의 통계분석, 대표적 상담사례의 정리·소개, 종 합분석 • 평가와 방향제시 등으로 결정하였다. 백서는 종래 이주노동자사목을 위한 노동사목위 원회의 활동을 총괄적으로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더욱 교회의 손길 이 필요한 실직자, 노숙자, 가정폭력문제 등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지침서가 될 수 있었다.34)

상담기록카드의 개선작업은 이규용 박사가 상담원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확정하고, 상 담내용은 이주노동자와 면담한 뒤에 해당기업에 확인한 사실관계와 진행경과, 최종결과를 기 록하기로 하였다. 상담요워들의 교육은 상담기법 연수. 외국어ㆍ전문용어 등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특히 직원들 스스로 직무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전문가 수준 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아울러 노동사목위원회도 직원들의 노동환경을 개 선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소득세신고, 4대보험적용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상 담사례백서』는 담당자마다 상담의 전개방식과 기재방법이 제각각이어서 통계결과를 신뢰하 기 어려웠고, 베들레헴 어린이집 개선작업으로 인한 재정문제 등으로 중단되었다.35)

③ 산재문제

노동사목위원회의 산재사목은 2003년 2월 10일에 프라도수녀회의 정점순(세실리아, 195 6~) 수녀가 노동사목회관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본격화하였다. 여의도성모병원이 진폐환 자를 계속 진료하였으나. 적자누적으로 사업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해져36) 해결방안을 모색하

³³⁾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전문위원 회의록, 2004년 10월 9일자.

³⁴⁾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전문위원 회의록, 2004년 3월 13일자.

³⁵⁾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전문위원 회의록, 2004년 6월 12일자.

기 위하여 담당교수를 전문위원회의에 초청하여 진폐환자 관련실태와 검토해야 할 문제상황 을 들었다. 당시 진폐환자 약 5만 명 가우데 약 5천 명이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노동부 산재보험국은 광산폐업과 자연사망으로 진폐환자들이 감소하고, 여타산재보다 진폐환 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많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진폐환자 는 감소추세로 볼 수 없고, 증상이 호전되기 어려우며, 장기요양으로 생활이 궁핍해져 보호ㆍ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유족급여수급과 관련하여 상당한 어 려움이 초래되었다. 진폐환자 처우제도의 문제점으로 진폐인정 기준의 낙후, 입원치료의 요건 인 합병증에 대한 비현실적인 인정기준, 치료방법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환자와 요양관리의 부실, 실무를 책임지는 기구부재 등이 지적되었다.

국내유일의 산재관련 제3차 진료기관인 성모병원은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의료진, 우수한 의료장비가 있어 모든 진폐환자들이 성모병원을 원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족하 고, '진폐전문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았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의학과를 지 원하는 전문인력이 없었다. 진폐환자의 입원기간을 단축하고 진폐환자병상을 축소하였으나. 이를 전부 외래와 일반진료로 전환할 경우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결국 정부에게 제 도개선을 촉구하고, 성모병원 진폐진료방식을 개선하더라도 진폐의 치료효과 저조, 정부정책 의 비효율성, 경영악화와 의료종사자 선호도변화 등이 걸림돌이었다.

2004년 6월 2일에 허윤진 신부, 도요안 신부, 정영화 교수 등이 성모병원 원목담당 신부와 병 원장을 면담하고, 이어 도요안 신부와 정영화 교수가 노동계, 정부 관계자와 면담하였으며, 도요 안 신부가 원목담당 박근태 신부와 추가 면담한 뒤에 전문위원들이 논의하였다. 진폐환자의 수 와 진폐진료사업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성모병원 진폐시설을 개선하고 확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특히 성모병원의 전체 진폐환자 150여 명 중 40~50명이 3~ 4일씩만 집중진료를 받으며 진료시설을 스스로 나누어 활용하는 상황이므로 '서울'이라는 편이 성을 제외하면 대규모 공공의료시설의 진료수준도 기대할 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성모병원 구조조정과 진료특성화사업 등은 교회도 인정하여 주어야 하고, 진폐진료 팀이 성모병원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관계기구와 환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성급히 진폐병동을 폐쇄하거나 진폐화자들을 공공의료기 관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하고, 고유가파동으로 석탄사업의 재기경향이

³⁶⁾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전문위원 회의록, 2004년 3월 13일자.

나타나고, 통일 이후 북한의 광산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유입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진폐문 제는 정부·공공부문이 본격 대처해야 할 사안이고 공공의료기관이 전문인력을 양성·파견 하여야 할 과제이었다.

즉, 진폐문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 책임주체이고 민간병원은 보조입장이지만, 정부정 책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공공의료시설을 확보할 때까지 현재의 성모병원 진폐병동을 유지하 는 것이 필요하였다. 아울러 성모병원의 경영혁신 등 내부문제에 대하여 노동사목위원회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교회는 진폐환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목적 필요에 대응하는 노 력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37)

④ 비정규직 문제

2004년에 고용형태의 다양화경향에 따라 법과 제도 밖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많은 비정규 직 노동자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비정규직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부당한 차 별'과 '합리적 차이'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조합과 관련된 영역에서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윤리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등 이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필요하였다. 사회에서 일반 적인 '경제논리'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교회 스스로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 어야 하였다. '복음전파의 효율성'에 대한 근본고민과 방향설정으로 교회의 사명의식에 근거 한 교회기관의 경영자, 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시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회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목적 ·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비정규직노동자의 최소화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직원을 채용할 때 관련사제의 자의적 판단여지를 최소화함으로써 고용의 투명성ㆍ객관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자원봉사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38)

⑤ 노동사목 50년사

2008년은 서울대교구가 노동사목에 본격적으로 전개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었다. 가톨릭 노동청년회 전국본부가 1986년에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25년사』를 발간하였으나, 가톨릭노 동청년회에 국하된 내용이고, 출간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노동사목에 대한 복

³⁷⁾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전문위원 회의록, 2004년 6월 12일자.

³⁸⁾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전문위원 회의록, 2004년 3월 13일자.

음적·교회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또한 이 책을 출간하고 25년이 더 지나면서 노동사목에 헌신하던 많은 이들이 계속 선종하고 귀중한 문헌자료들이 없어졌으며, 남은 문 헌자료도 산재하여 있는 데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노동사목에 헌신한 이들이 언제 선종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동사목의 중요문헌과 증언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도 노동사 목을 수행하는 이들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임을 인식하였다. 지난날 선배들의 노동사목 에 대한 헌신은 그 자체로서도 가치 있는 것이지만, 이들이 일상을 통하여 복음을 실천하고, 이웃과 사회를 복음화한 환경사도직에 대한 모범을 당대와 후대에 널리 알리는 일 역시 귀중 한 작업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척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과 노동자의 귀중함을 깨우쳐 주고, 노동조합을 직접 결성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었으며, 노동현장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자신을 복음화하고 동료 와 이웃, 사회를 복음화한 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가톨릭노동장년회, 어린이사도직 같은 사도직 단체 회원들과 늘 그 현장에서 이들을 동반한 사목자와 수도자들의 행적을 사실대로 기록하 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점차 노동사목의 범주가 확대되어 교회가 수 행한 산재사목,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사목활동을 기록하는 일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고, 교회가 시대상황에 따라 세상에 입장을 표명하고, 정책을 수 립하여 일선현장에서 실천하게 한 사실 역시 후대에 남겨야 할 중요한 유산이 아닐 수 없었 다. 이러한 사명을 인식한 노동사목위원회는 2008년의 50주년에 맞추어 전문위원들을 중심으 로 『노동사목 50년사』를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39)

2005년 7월부터 전문위원별로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2005년 연말까지 기본자료를 정리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사목의 관련자료와 정부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가능 한 범위 내에서 향후전망도 제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념적 측면과 직업적 측면의 병렬접근을 통하여 노동사목의 주된 목표변화에 대한 분석도 시도하여야 하고, 노동사목활동 내부의 갈 등·혼란이 일정한 시대에 따라 존재한 의미, 이러한 과정에서 교회노동사목의 방향이 구체적 으로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검토하여 다양성과 통일성 사이의 역학관계를 규명하기로 하였다.40) 2006년 8월 14일에 『노동사목 50년사』 발간작업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재확인하였다. 즉. 한 국교회의 노동사목에 대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향후

³⁹⁾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전문위원 회의록, 2004년 5월 14일자.

⁴⁰⁾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전문위원 회의록, 2004년 6월 11일자.

노동사목의 바람직한 '방향'을 정립토록 하기 위하여 노동사목의 환경으로 정리되는 정치ㆍ경 제ㆍ사회상황 등의 배경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도 이러한 요청에 합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하였다. 또한 『노동사목 50년사』를 발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와 노동사목 의 역사'를 정리하고 복원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므로 각종 기초자료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 분석하는 작업도 성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교회적 내지 교리적 측면에서 각종 사실사건에 대한 평가, 의미분석, 이에 기초한 향후전망작업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측면에 서 교회사의 중요사건들을 재검토하는 것 역시 필요하므로 '교회가 중요한 사건에 대해 빠뜨리 고 지나친 것이 없는지?' 또는 '필요 이상으로 집착한 것은 없는지?'도 성찰하기로 하였다.41) 2008년 10월에 거행할 50주년 기념 세미나를 준비하였는데, 개막미사 때 『노동사목 50년 사』 봉헌과 가톨릭노동청년회 선서식을 거행하고, '노동사목위원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세미나의 제1부는 위원장 허윤진 신부가 50주년사 작업을 설명 하고, 발간취지를 발표한 뒤에 '노동사목위원회의 과거와 현재'(문무기 교수), '이주노동자 지 원'(이규용 박사), '노동사목위원회의 미래와 전망'(김정한 박사) 등을 발제한 뒤에 제2부 토 론(질의·응답)을 진행하기로 하였다.42)

2006년 6월 30일까지 초고가 완료되어 이를 노동사목에 깊이 참여하였던 주교들과 사제들, 회원들에게 열람하여 이 초고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출판한 뒤에 10월의 50주년 기념미사에 서 봉헌하기로 하였다.

⁴¹⁾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전문위원 회의록, 2006년 8월 14일자.

⁴²⁾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전문위원 회의록, 2008년 4월 12~13일자.

₩ 제3절 신학생, 수도자 양성

1. 신학생 양성

1) 신학생 연수회43)



신학생 연수회

신학생 연수회 프로그램은 1996년 이후 노동사목 영성과 가톨릭 사회교리, 사회사목 소개 등으 로 시행하였다. 1998년 신학생 노동사목 연수회는 2월 9~13일에 분도 피정의 집에서 거행되어 27 명이 참석하였다. 가톨릭 사회교리와 그 변천, IMF체결 후 한국경제, 노동자, 가난한 이들과 함께 일하는 자세 등의 강의와 만남의 자리에 대한 평가인 패널토론, 가난의 영성에 대한 대화, 사회사 목부 각 단체 소개, 노동사목 실무자와 만남 등으로 진행되었다.44) 1999년 2월 8~20일에 분도 피

⁴³⁾ 서울대교구 신학생 연수회 평가보고서, 1998~2007년.

정의 집에서 개최된 신학생 노동사목 연수회에 47명이 참여하고, 2000년 1월 17~21일에 같은 장 소에서 개최되어 27명이 참여하였다. 2001년 1월 17~21일 역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어 33명이 참여하는 등 그동안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하고 강사만 조금씩 바뀌었다.

그러나 노동사목회관을 보문동으로 이전하고 2002년 1월 21~24일에 개최된 신학생 연수회 부터 '사회사목 연수회'를 '노동사목 연수회'로 바꾸고, 내용도 노동사목 위주로 편성하였다. 즉, 오리엔테이션, 강의(1) 가톨릭 사회교리, 단스 신부 비디오 시청, 강의(2) 가톨릭 사회교리의 변 천과 발전, 강의(3) 가톨릭 사회교리의 변천과 발전, 강의(4)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과제, 패널 토론, 강의(5)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자세, 강의(6-1) 노동사목 실무자와 만남, 강의(6-2) 노동사목 실무자와 만남, 가난의 영성에 대한 대화-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활동과 만남 중에 무엇을 느끼며,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만남의 자리 등이었다. 2003년 1월 20~24일에 41명, 2004년 1월 26~30일에 38명, 2005년 1월 17~21일에 24명, 2006년 1월 16~20일에 39명, 2007년 1월 15~19일에 29명이 각각 참여하였다.

2) 신학생 현장체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공동으로 하는 서울대교구 신학과 4학년 신학생 현장체험은 1998 년 6월 15~20일, 1999년 6월 21~27일에 개최되었고, 같은 프로그램을 1998년 6월 28일~7 월 4일과 1999년 6월 30일~7월 6일에 대전교구 신학생들에게도 시행하였다. 2000년 6월 1 9~28일에는 서울대교구 신학생 현장체험을 신학과 3, 4학년이 함께 참여하였고, 2001년부터 는 신학과 3학년 신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가톨릭사회복지회가 주관하는 신학생 현장체험 오리엔테이션(2007년 6월 18~19일)에 사회사목부 각 부서 소개시간을 배정하고 사회사목연 수 프로그램 흡수하였다.

⁴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연도 신학과 3학년 노동사목 연수회 평가서 참조.



신학생 현장체험

2. 수도자 양성

1) 현황변화

수녀분과는 노동사목에 관심 있는 수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정기 모임을 개최하였다. 일상과 연결하여 복음을 묵상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알아 효과적 으로 이들을 동반하기 위하여 생활반성과 현장체험,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강사를 초빙하여 수 강하고 그룹토의를 하였다. 이 모임을 통하여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동반하고자 한 수 녀들에게 양성의 장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참석하는 수녀는 5~8명으로 참석률이 저조하였는데, 1998년에 영원한 도움 의 수녀회 수녀 5~6명 정도가 고정으로 참가하다가 대부분 유기서원자이었던 그들은 소임지 가 멀어지자 계속 참석할 수 없고, 새로 가입하는 수녀들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45) 노동사목위

⁴⁵⁾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9년 5월 27일자.

원회 수녀분과 수녀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고심하다가 수녀장상연합회 회의에 참 석하여 노동사목위원회 수녀분과를 소개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46) 한편, 이주노동자사목을 하는 성직자 중심의 모임(사제분과 모임)을 확대하여 2002년 12월 부터 이주노동자사목에 관계된 수도자와 평신도선교사까지 함께 하는 정기모임을 통하여 사 회변화에 따른 안건을 토의하고 교회의 대응방안, 단체별 활동사항을 나눔으로써 이주노동자 사목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이주노동자사목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였다.47)

노동사목위원회 수녀분과는 가톨릭노동청년회가 도입되던 초기부터 노동사목에 다양한 형태 로 참여하면서 활동영역을 확대하였다. 많은 수녀회들이 버스안내원과 공장노동자들의 인간성 회복과 권리보호, 교육을 위하여 적극 뛰어들고,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였을 뿐 만 아니라. 직접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노동자로 살기도 하였다. 또한 가톨릭노동청년회 • 가톨릭 노동장년회 · 어린이사도직 같은 사도직단체의 동반자, 산재사목 전담자 등 늘 가장 필요한 곳 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찾았던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 노동사목은 사도직단체 외에도 이주 노동자상담소, 외국인공동체, 쉼터 등 사목영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2004년에 각 수녀회의 카 리스마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기로 결정하였다.48)

2006년 3월 13일에 수녀분과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연간활동계획을 수 립하였는데, 복지재단의 해외연수 프로젝트 신청을 제안하고, 국제결혼 피해자들의 국가를 방 문하여 현지실태와 중개회사들의 소개경로 등을 알아보기로 하였다.49) 2006년 5월 16~17일 에 서산에서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허윤진 신부와 수녀분과 수녀 7명이 개최한 회의에서 홀 수 달 두 번째 주 화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연수회와 현장체험

수녀분과는 노동사목에 필요한 신학・경제학・법학 등의 강좌를 해마다 개최하여 지식을 쌓고, 현장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이들의 보고를 통하여 경험을 공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 긍정적인 면으로 참여하는 수도자가 적지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⁴⁶⁾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8년 11월 12일자.

⁴⁷⁾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2004년.

⁴⁸⁾ 위와 같음.

⁴⁹⁾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수녀분과, 회의록 2006년 3월 13일자.

일치감이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수도회가 참여하지 않고 있고 홍보가 안 되어 장상연합회와 교구차원에서 홍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다.50)

또한 노동사목에 관심이 있거나 헌신하려는 수녀들의 현장체험에 동반하는 프로그램으로 인보성체수녀회, 성가소비녀회, 동정성모회 수녀들의 공장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중간 나 눔, 마무리 나눔에 함께 함으로써 이 수녀들의 현장체험을 복음과 사회교리 시각에서 보고 생 활하도록 동반하였다.51) 수녀들의 노동사목 현장체험은 노동사목위원회의 쉼터와 상담소들을 중심으로 2008년 당시까지 이어졌다.

⁵⁰⁾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9년 2월 25일자.

⁵¹⁾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2004년.

₩ 제4절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

1. 남·북부연합회 통합



노량진 카페 내부

가톨릭노동청년회 북부연합회는 1999년 5월 당시 3개 팀, 10명으로 회원들이 많이 이탈하여 전체적으로 침체된 상황이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최창무주교가 가톨릭노동청년회 남・북부연합회의 예산을 통합할 것을지시하자52), 가톨릭노동청년회사무실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동안 남부연합회는 돈보스

꼬청소년센타, 북부연합회는 종로노동사목회관을 사용하였는데, 노량진 전국본부가 지리적으로 편리하고 전국협의회도 노량진을 사용하기를 권하여 방 1개를 임대하기로 하였다.⁵³⁾

1999년 10월 17일에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연합회 총회를 먼저 남부연합회와 북부연합회가 따로 개최한 다음 서울연합회로 완전히 통합하여 진행하였으며⁵⁴⁾, 1999년 11월에 북부연합회와 남부연합회 사무실도 노량진 전국본부 건물로 이전하여 통합하였다.

2. 현황변화55)

가톨릭노동청년회 북부연합회는 1998년 당시 5개 팀이 월 1회 생활반성을 하였으며, 남부

⁵²⁾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9년 2월 25일자.

⁵³⁾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9년 9월 17일자.

⁵⁴⁾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9년 11월 18일자.

⁵⁵⁾ 기념미사와 피정과 연수회, 교육 등 연례행사는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과 사목방문 보고서 참조

연합회는 투사팀 7개 팀과 2개의 예비회원 팀이 있으며, 30세 이상 회원들이 회합을 하였 다.56) 1998년 11월 15일에 구로본동성당에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제4대 총재주교를 역임 하였던 전 안동교구장 두봉 주교가 가톨릭노동청년회 40주년 기념미사를 집전하고, 기념행사 도 거행하였다.57)

1999년 12월 이후로 투사팀 2개와 양성팀 2개로 정착되고 활동팀이 있었는데, 활동팀은 정 회원들이 아직 정식으로 회원이 되지 않은 일반인들을 만나 회합하였으며, 2000년 상반기에 활동팀이 3개 더 생겨 총 5개 팀이 되었다. 활동팀은 성산동성당 고등학생팀. 해방촌성당의 고등학교 3학년팀, 일반인 중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팀이 있었다. 투사 팀은 2000년부터 한 달에 두 번 복음나눔과 생활나눔을 번갈아 하면서 회합하고, 양성팀은 교재를 만들어 회합 하였다.58) 2000년 11월 당시 회원은 25명 정도이었다.59)

2001년에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살레시오수녀회 박명자(수산나) 수녀가 2001년 3월부터 노량진 전국본부로 출퇴근하며 활동하였다. 2002년 3월에 주수욱 신 부가 용동진 신부의 뒤를 이어 가톨릭노동청년회 지도신부가 되었으며, 2002년 11월에 허윤 진 신부가 지도신부가 되었다.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가 있는 노량진은 학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수만 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있었다. 이 젊은이들을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사도로



마닮회 팀회합

양성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가 톨릭노동청년회 건물 내에 '아낌 없이 주는 나무'라는 카페를 만 들어 청소년들이 쉽게 다가오고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60)

2003년에 신생팀 3팀이 결성 되었다. '예사모'(예수님을 사랑 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예비신 자 3명이 세례를 받고 결성하였

⁵⁶⁾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8년 9월 17일자.

⁵⁷⁾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8년 11월 12일자.

⁵⁸⁾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2000년 5월 18일자.

⁵⁹⁾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2000년 11월 16일자.

⁶⁰⁾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2003년.

고, '까봉'(까르딘 봉사단)은 3명으로 대학생팀이었으며, '마닯회'(마리아를 닮고 싶은 사람들 의 모임)는 수험생팀으로 4명이었다. 2003년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통하여 계속 만난 젊 은이 5명이 가톨릭노동청년회 지도수녀를 통하여 교리와 성서를 공부하면서 양성되고, 노량 진 전국본부 건물의 청소와 관리, 카페에 찾아오는 젊은이들에게 봉사하고 환영하는 어머니 들 20명이 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는데, 이들의 활동으로 지도수녀가 주변의 젊은이들을 찾아 만나는 시간이 늘어났다.61)



전국모임 등반대회

2004년의 회원현황은 5개 팀에 20명으로 '예사모'(3명), '까봉'(4명), '마닮회'(5명), 신생팀으로 수험생팀인 '야곱의 아들'(4명), 예비신자들이 세례를 받은 뒤에 결성한 '미솔'(4명) 등이었다. 2005년의 팀과 인원 현황은 6개 팀에 21명으로 '예사모'(3명), '까봉'(2명), '마닮회'(5명), '미솔'(4 명), 어린이사도직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으로 들어온 회원들의 신생모임인 '새내기'(3명), 합격한 수험생들과 기존회원들이 다시 만든 '피앗'(4명) 등이었으며, '야곱의 아들' 은 수험생활로 인해 해체되었다.

⁶¹⁾ 같은 글.

2004년 12월 25일에 전주교구 가톨릭회관에서 전주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를 발족하기 위한 준비모임을 개최하였으며, 지도수녀와 서울대교구 임원 3명, 전주교구 지도신부와 지도수녀, 동 반자들이 참석하여 시작기도, 서울대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 지도수녀의 강의, 활동사례 발표, 서울대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번 모임이 비록 작은 예비모임이었지만, 다른 교구의 가톨릭노동청년회 발족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더 큰 도움을 주고 싶은 열의를 발견하였다. 다른 교구 활동에 모범이 되도록 서울대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가 먼저 체계적으로 활동하여야겠다. 1회적인 만남에 그치지 말고 연계망을 구체적으로 구축하여 다른 교구들과 연합회 활동까지 이어지도록 해야겠다."고 평가하였다.

2006년의 팀과 인원 현황은 7개 팀 29명으로 '예사모'(4명), '까봉'(2명), '미솔'(4명), '피앗'(4명), '마닮회'(3명) 등과 신설 팀으로 '사낚부'(사람을 낚는 어부들, 5명)와 '포도나무'(간호사들의 모임, 7 명) 등이었으며, '새내기'는 팀원들의 군입대로 해체되고, 남은 회원들은 다른 팀으로 합류하였다. 2007년의 팀과 인원 현황은 7개 팀에 33명으로 '예사모'(3명), '까봉'(4명), '미솔'(4명), '사 낚부'(6명), '포도나무'(7명), 신설 팀으로 어린이사도직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가톨릭노 동청년회로 들어온 회원들의 모임인 '천지창조'(4명), '겨자씨'(5명) 등이며, '피잇'과 '마닮회' 는 해체되었다. 지도수녀는 박명자 수녀의 뒤를 이어 이정금(마리아 도미니카) 수녀가 2007 년 2월에 부임하였다.

2008년 6월 당시 9개 팀에 44명으로 '예사모'(6명), '까봉'(5명), '미솔'(5명), '사낚부'(5명), '천지창조'(3명), '포도나무'(7명), '겨자씨'(4명) 등과 신설팀으로 '소나무'(5명), 명칭이 정해지 지 않은 팀(4명) 등이었다. 2008년 2월부터 이용미(마리아나) 수녀가 지도수녀를 맡았다.

3. 2000년 대희년 준비

가톨릭노동청년회는 까르딘상담터에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자, 이들의 문제를 관찰하고 그 들 안에서 적합한 역할을 찾기 시작하였다. 상담소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대부분 음식점 같은 곳 에서 장시간 일하기 때문에 식사를 제때에 하지 못하며, 면허 없이 오토바이로 배달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등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였다. 대개 임시직이므로 용돈 정도 밖에 못 받을 만큼 착취당하여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이직률도 높았다.

이들은 어려운 고민들을 깊게 생각하기 싫어하고, 자신의 생활이나 주변의 상황들을 농담처



성지순례(배론)

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여 자신의 말과 행 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인식될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름대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고민하고, 겉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에 대한 애정도 강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므로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인천 호프집 사건' 이후 청소년노동자 문제를 단순히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로 접근할 것인지, 노동문제로 접근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즉, 고등학교 에 입학할 때부터 가정 밖으로 나가 일하려 하고, 한편은 그런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노동시장 이 존재하였기 때문이었다. 분명히 불법노동인데도 가정과 학교 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 문에 노동계로 들어가려는 이 청소년들의 의도와,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노동시장 의 메커니즘이 결합되면서 가출문제나 탈선문제가 구조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당시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은 이렇게 심각한 청소년들의 불법노동실태를 조사하고 정 리하여 교회와 사회에 보고서를 내놓고자 하였다. 이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노동청소 년들의 삶의 실태를 사회에 적나라하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가 노동청년 들 안에 새롭게 파고들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였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 위원회는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얻어진 것을 정리하여 2000 년에 발간할 『노동자들의 대희년 백서』에 포함하기로 하였다.62》

2000년 1월 15~16일에 17명이 훈련회를 개최하여 '카다인의 생애'를 수강하고, 이 회원 훈련회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사례발표를 들었다. 훈련회 이후 설문지를 만들었는데, 청소 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처음이어서 포괄적인 조사, 즉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 노동조건, 가 정ㆍ학교ㆍ건강에 미치는 영향. 일을 한 원인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하였다. 이 설문지를 팀 별로 계획을 세워 1명씩 또는 조를 편성하여 5월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곳을 찾아가 설 문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난 뒤에 조사에 응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만나기로 계획하였다.63)

4. 국제교류

1998년 외국과 교류는 4월 4~8일에 타이완가톨릭노동청년회가 한국을 방문하여 노동사목회 관에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와 생활나눔을 하였다. 4월 20~25일에 도요안 신부가 타이완가톨 릭노동청년회를 방문하고 생활반성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가톨릭노 동청년회 국제본부 지도신부와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노동사목회관에서 동반자 워크숍을 개 최하고 동반자의 역할과 팀 회합방법에 대하여 나누었다. 7월 1일에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 부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 국제본부팀 동반사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생활반성 나눔에 대하여 논 의하였다. 11월 16~22일에 도요안 신부가 필리핀 Euntes Center(Zamboanga)를 방문하여 가톨 릭노동청년회 관련 교회문헌과 가톨릭 환경사도직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1999년 외국과 교류는 4월 18~21일에 도요안 신부, 강신모 신부, 배존희 신부와 가톨릭노 동청년회 회원들이 타이완가톨릭노동청년회를 방문하였으며,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도요 안 신부가 필리핀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연수회에 참석하였다.

2000년 외국과 교류는 3월 5~7일에 도요안 신부가 타이완가톨릭노동청년회를 방문하고, 3 월 7~14일에 가톨릭노동청년회 국제본부 지도신부와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8월 4~7일 에 도요안 신부가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 관련 건으로 홍콩 진 주교와 만났다. 10월에 가톨릭

⁶²⁾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9년 11월 18일자.

⁶³⁾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2000년 5월 18일자.

노동청년회 국제총회에 아시아지역 지도신부인 도요안 신부가 참가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하 였다. 발전된 나라는 영국·이탈리아·프랑스·한국·홍콩·타이완 등이고, 발전하는 나라들 은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포르투갈 등이며, 발전되지 못한 나라는 아프리카대륙의 여 러 나라이었다. 그런데도 나라마다 어려운데, 대체로 실업으로 인한 문제와 청소년 문제이었 다. 영국가톨릭노동청년회의 실제회원은 25명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그들이 관리하 는 회원은 몇 백 명이었다. 항상 관찰ㆍ판단ㆍ실천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 정신을 알렸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신 으로 출발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64)

2004년 국제교류는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이탈리아 빅토르키아노교구에서 '우리는 다 르다'는 주제로 거행된 가톨릭노동청년회 국제총회에 박효정(세라피나), 한상수(베드로), 박명 자(수산나) 수녀, 도요안 신부(아시아 지도신부)와 통역으로 김종용(요셉), 신동진(신학생) 등 이 참가하였다. 6월 25일에 전 참가자가 모여 국제총회 소개, 세부사안 등 안내, 친교의 시간 을 보냈다. 6월 26일에 개회미사를 봉헌하고 개회식, 로마시내 관광, 친교의 시간으로 진행하 였다. 6월 27일에 각 나라별 가톨릭노동청년회 소개, 친교의 시간. 6월 28일에 각 대륙, 지역



국제총회(이탈리아)

간 협력에 관한 발표, 각국의 가 톨릭노동청년회 활동소개, 세미 나와 그룹작업, 국제가톨릭노동 청년회의 역사에 관한 소개. 6월 29일에 그룹별 세미나 종합발표, 전체 세미나, 전체회합, 6월 30 일에 바티칸방문 교황접견, 친교 의 시간 등으로 이어졌다.

7월 1일에 전체회합, 세미나, 전체 세미나, 친교의 시간. 7월 2

일에 전체회합, 양성에 관한 워크숍, 친교의 시간. 7월 3일에 평가에 관한 참가자들의 공동작 업, 전체회합, 정관에 관한 작업소개, 정관 수정 투표, 친교의 시간. 7월 4일에 지역방문 미사, 자유시간, 7월 5일에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 국제사무국의 활동보고,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

⁶⁴⁾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2000년 11월 16일자.

국제사무국의 회계보고,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 국제사무국의 조직보고, 친교의 시간. 7월 6일 에 전체와 그룹회합, 미래계획 세우기, 7월 7일에 대륙별 미팅, 7월 8일에 미래계획, 국제가톨 릭노동청년회 정관수정에 관한 투표, 미래계획과 해결방안들에 관한 투표. 7월 9일에 국제가 톨릭노동청년회 국제사무국 임원선거, 총회평가, 폐회식, 폐막미사로 마쳤다.



세계청년대회(독일)

2005년 국제교류는 8월 7~22 일에 독일 쾰른에서 '우리는 그분 을 경배하러 왔습니다'는 주제로 개최된 세계청년대회(WYD)에 가톨릭노동청년회 3명, 어린이사 도직 4명 등이 참석하였다. 전 대 회가 개최된 독일 퀵켈하임 마을 에서 민박하면서 문화를 교류하 고 체험하였으며, 본 대회의 대회 개막미사, 아시아의 날, 한국의

날, 교리공부, 십자가의 길, 교황과 함께 촛불기도, 폐막미사 등에 참여하였다.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참가자 3명은 특별히 이탈리아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주최한 WYD (Working as new people) 프로그램에서 아시아대륙 발표자로 참가하여 한국 젊은이의 현재 상황 과 노동의 인식 등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의장인 레나토 라파엘로 마르티노 추기경이 각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국에서 발표하는 대륙과 국가의 상황, 현실을 설명하



아시아총회(한국)

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방향을 제시하며 사회교리(간추린 사회교리서)를 강의하였다.

2006년 국제교류는 8월 22~ 28일에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에 서 'The Future Is In Our Hands'(미래는 우리의 손에 있 다: 교회와 사회 안에서 젊은이 들의 관심과 참여)라는 주제로 아시아총회를 개최하여 아시아 6개국 회원들과 동반자, 참관자, 봉사자, CIJOC 지도신부, 아시아대륙 협력자 등이 참석하였 다. '교회와 사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더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 안에서 함께 그 방안들을 모색하고 서로의 활동과 경험을 나누며 배우고, 아시아 대륙 가톨릭노동청년회 의 공동 미래계획을 세운다'는 목표로 각 참가국 대표들이 가톨릭노동청년회 조직과 활동, 미 래계획 발표, 주제별 그룹토의와 발표, 가톨릭노동청년회 트레이닝, 국제설문조사 발표와 그 에 관한 그룹토의, 워크숍, 각 나라와 공동미래 계획 세우기, 친교의 시간, 서울 문화탐방, 한 국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방문 등으로 진행하였다.

제5절 가톨릭노동장년회의 활동

1. 가톨릭노동장년회 현황변화

1998년의 가톨릭노동장년회는 18개 팀이었으나65), 1999년에 13개 팀, 60개 가정 이상이 활동하였으며, 동반자는 사제·수도자·평신도 9명으로 팀 회합에 시작부터 참석하여 성서와 영성을 뒷받침하였다.66) 대부분의 회원들이 IMF사태로 큰 타격을 받아 빚에 허덕이고 가정 이 와해되기도 하였으며, 일용직 가운데 일요일에 겨우 일을 맡거나 평일이라도 늦게 마쳐 회 합에 참여하기 어려운 회원도 많았다.67)

2001년은 15개 팀, 60가정에 약 100명의 회원이 있었다.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이 신축되자 2001 년 4월에 가톨릭노동장년회 시무실을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2002년은 15개 팀에 150명이었는데, 3 월에 허윤진 신부가 용동진 신부의 뒤를 이어 가톨릭노동장년회 제7대 지도신부로 취임하였다. 2003년은 16개 팀에 150명, 2004년은 12개 팀에 130명, 2005년은 10개 팀에 회원 105명, 임원 9명 등이었다. 2007년은 13개 팀에 120명, 2008년은 13개 팀 50가정에 회원 100명 등이었다.

2. 가정의 날 행사68)

1998년 6월 7일에 돈보스꼬청소년센타에서 '가정- 일치의 학교'라는 주제로 서울대교구 노 동사목위원회가 주최하는 '98가정의 날 축제에 참여하였다. 2001년 5월 28일에 서울대공원에 서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개최한 가정의 날 행사에 가톨릭노동청년회, 어린이사도직과 함께 참여하였다. 2002년 5월 12일에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개최 한 가정의 날 행사에 가톨릭노동청년회, 어린이사도직 등을 합하여 100여 명이 참여하였는데,

⁶⁵⁾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8년 11월 12일자.

⁶⁶⁾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9년,

⁶⁷⁾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9년 11월 18일자.

⁶⁸⁾ 새해인사와 교육, 연수회, 피정, 성지순례 등 연례행사는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과 사목방문 보고서 참조.



가정의 날 행사(밤 줍기)

어린이사도직 연학 야외행사 위 주로 치렀다. 2003년 9월 28일에 강원도 춘천에서 행한 가톨릭노 동장년회 가정의 날 행사에 90명 이 참여하여 밤 줍기 등 다양한 행사를 거행하였다.

3. 외국과 교류

1) 국제총회

2000년 5월에 브라질 사웅파울로에서 공정하고 좋은 환경이 지속되는 세상을 위하여 개최된 가톨릭노동장년회 국제총회에 가톨릭노동장년회 전국회장 금선해(이냐시오), 부회장 고옥자(데 레사)와 통역으로 주수욱(베드로) 신부가 참가하였다. 35개국, 120여 명의 공동체 대표가 참석 하여 '연대를 통한 발전'이란 주제와 6개 항목의 부제(인간의 삶과 노동, 문화, 시민사회, 소비자 의 책임, 영성과 인권, 환경)를 기초로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처하는 방법을 나누었다. 한국가



브라질총회(2000년)

톨릭노동장년회는 여섯 가지 부 제 가운데 '환경, 시민사회, 책임 있는 소비'를 선정하여 준비하였 는데, 첫째로 자국 내의 현 상황 과 이에 해당하는 특징적인 상황 세 가지, 둘째로 자국 내 활동단 체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분석 하는가, 셋째로 이를 개선하기 위 하여 실행된 활동들을 세 가지 정도로 기술하였다.

신자유주의체제가 자초한 위협들이 세계화를 통하여 경제집중화를 초래하고 경제집중화는 소수에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외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 속화시킨다고 인식하였다. 이로 인한 부채는 많은 나라의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인간적 발전을 박탈한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투쟁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점과 어린이노동, 여성의 노동착취 등이 민주 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아 울러 여성의 역할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2004년 5월 10~21일에 캐나다 퀘벡에서 '새로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희 망의 길을 열자'라는 주제로 개최된 가톨릭노동장년회 국제총회에 김병근와 이종애, 통역으로 김효성 수녀가 참석하였다. 이 총회는 당면문제들로 임금을 받지 않고 행하는 자발적 노동. 실업, 비정규직노동, 이주노동자, 고용불안정, 노동자의 권리무시, 여성이 처한 상황, 미성년, 기타 등을 토의하였으며, 건설적인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는 활동을 개관하였는데,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ㆍ관리, 노동자 교육ㆍ훈련, 개인적 차원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가톨릭노동장년회 활동과 다른 조직·단체·노조들과 공조, 여성활동의 증진과 책임감 고취, 고용창출, 노동자 의 의식고취와 단결 등을 제시하였다.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행동으로 부패에 대항 한 투쟁, 평화를 위한 투쟁, 남녀의 평등을 위한 투쟁, 모든 노동자들의 정보, 양성, 인권보호, 사 회적 안정을 위한 투쟁에 동참한다. 둘째, 책임 있는 소비를 위해 행동함으로써 정당한 경제체 제 설립하고, 자연자원을 보호한다. 셋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위해 더욱 특별하게 주의를 기 울이면서 노동의 적당한 기구화의 형태를 위해 행동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조 직화, 장기적 고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며, 노동의 협력기구 형태를 발전시키고, 노동과 가정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주는 정책을 수립한다. 넷째, 경제·재정에 대하여 더욱 공정한 이해를 추 구하기 위하여 활동함으로써 대륙들이 일치하고 재정을 교류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국제적ㆍ대 륙적 · 지역적 · 국가적 · 지방적인 차원에서 적용하기로 하였다.

2) 동아시아 지역교류

1998년 9월 17~23일에 대구 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 '이주노동자, 변형근로제'라는 주제로 개 최된 제9차 가톨릭노동장년회 동아시아교류회에 한국 6명, 일본 6명, 타이완 6명, 국제본부서기



동아시아 지역교류(1998년)

장 1명, 통역 8명, 봉사자 6명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하였다.69) 1999년 9월 6~10일에 일본 시모 노세키에서 개최된 가톨릭노동장 년회 동아시아 동반자 회의에 용 동진 신부와 동반자 5명이 참석 하였다.70) 2000년 9월 1~4일에 일본에서 개최된 가톨릭노동 장 년회 동아시아 대표자회의에 김 병근이 참석하였다.

2002년 9월 26일~10월 1일에 타이완 문취루에서 가톨릭노동장년회 동아시아교류회가 개최되 었는데, 여성노동자문제(서울 고옥자), 변형근로와 비정규직화의 진행, 실업(서울 박용국), 이주 노동자 문제(인천 박문용), 환경문제(마산 임홍길) 등이 거론되었다. 2003년 10월 6~11일에 전교 갈멜 수녀원 피정센터에서 개최된 가톨릭노동장년회 동아시아 동반자세미나에 이종애, 김영남, 고옥자 등이 참석하였다. 2004년 10월 14~16일에 서울교육 문화회관에서 한국 Social Asia Forum이 개최한 동아시아 국가의 미래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김병근과 고옥자가 참석하였다.



동아시아 지역교류(2002년)

2007년 11월 2~4일에 타이완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동북·동남 아시아 대표자회의에 전국회장 고옥자와 각 교구 대표 7명과 통 역으로 성심수녀회 김효성 수녀 가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국가 별 보고에 이어 2007년을 반성・ 평가하고 새로운 조직에 대한 제안과 토론, 집행위원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회의에서

⁶⁹⁾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8년 9월 17일자.

⁷⁰⁾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9년 9월 17일자.

결정된 사항은 동남 · 동북아시아를 동아시아로, 차기 동아시아집행위원은 타이완으로, 다음 회의는 2009년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3) 국제임원 방문



국제지도신부 방문

2003년 10월 1일에 가톨릭노 동장년회 국제지도신부가 한국 을 방문하여 10월 2일에 한국가 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과 만났 으며, 10월 4일에 가톨릭노동장 년회 아시아 집행위원 오오타가 용동진(바오로) 신부, 김병근(테 오도로), 이종애(크리스티나), 고 옥자(데레사) 등을 만났다. 10월 8일에 가톨릭노동장년회 동아시

아 동반신부, 수녀님들과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과 만나 아가페를 하였다.

2007년 3월 8~11일에 국제사무총장 브르지타, 아시아 집행위원 샨 등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임원진들과 본부 상황 그리고 아시아 상황에 대하여 교류하고 회원들과 만났다.

₩ 제6절 어린이사도직 활동

1. 어린이사도직의 현황변화71)



친한 친구 팀

1998년 어린이사도직 현황은 서울・인천・대전교구의 7개 지 역, 22개 팀으로 동반자는 10명이 었다. 1팀에 어린이 5~10명으로 회원은 총 150명 정도이고, 모임 은 한 달에 1~2회 가량 개최하 였다. 5월에 답십리 부활팀(중등 부), 8월에 인천 짱구 모임(초 3~6)을 각각 시작하였다. 1999년 은 7개 지역(성수동 · 신내동 · 월

곡동・구로동・수유동・인천・공주), 21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동반자는 10명으로 동반사제 1명, 동반수녀 5명, 평신도동반자 4명 등이었다. 1월 6일에 수유리 어린 제자 모임, 3월에 가톨릭 노동장년회 자녀들의 미운 오리 모임, 5월에 수유리 개구쟁이 모임을 각각 시작하였다.

2000년은 5개 지역(월곡동·수유동·인천·공주·가톨릭노동장년회) 15개 팀으로 줄었으며, 동 반자는 동반사제 1명, 동반수녀 4명, 평신도동반자 4명, 예비동반자 3명 등이었다. 어린이사도직 모 임에 나오는 어린이들 가운데 2, 3년 정도 된 어린이들을 보면 처음 산만하였던 모습이 동반자와 관계 속에서 차분해지고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어린이들이 주인이 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 었다. 또한 어린이들과 나눔을 통하여 어린이들 세계에서 어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72)

2001년 3월에 고덕동 중등부모임과 노량진 가톨릭노동장년회 자녀모임(초・중등부), 4월 29일에 인천 가톨릭노동장년회 자녀모임 예수님 장미 성모님(초등부), 6월 29일에 구로동 가 톨릭노동장년회 자녀모임 하느님(초등부)·하우스(중등부), 12월에 구로1동모임을 각각 시작

⁷¹⁾ 연수회와 교육 등의 연례행사는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과 사목방문 보고서 참조.

⁷²⁾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 보고서, 2000년.

하였다. 73) 2002년 3월에 동반사제인 용동진 신부가 이임하고, 허윤진 신부가 새로운 동반사 제로 취임하였으며, 3월에 인천 어깨동무 공부방 모임을 시작하였다.

2003년의 어린이사도직 회원현황은 미운 오리 등 13개 팀에 85명이고, 동반자는 8명이었 다.74) 1월에 인천교구가 분리되어 인천교구 학생 50여 명과 동반자 4명이 따로 모임을 개최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월 17일에 구로1동 중등부 로사리오모임, 3월 8일에 빛나라 공부방 모임 단발소녀(초 5~6, 여)와 행복모임(중, 여)이 각각 시작되었다. 한편, 2월에 정영수(안나) 수녀가 어린이사도직 전담수녀로 임명되었고, 12월에 동반사제가 허윤진 신부에서 이상범(시 메온) 신부로 변경되었다.

2004년의 어린이사도직 회원현황은 14개 팀에 86명이었으며75), 3월에 어린이사도직 전담 정 영수 수녀가 인천교구로 전근되어 연난(베로니카)이 전담동반자에 임명되었다. 3월 6일에 신내 동성당 F4모임(중 1, 남), 4월에 작은 하늘(초 2~5) 빛나라공부방모임(중 2, 남), 9월에 빛나라 공부방 오미호 오전모임, 11월 13일에 고덕동 프란치스코모임(중 2, 남), 12월에 신내동 한 가족 (초 6, 남) 모임을 각각 시작하였다.76) 2005년의 어린이사도직 현황은 14팀에 회원 86명, 임원 3명 등이었으며, 5월 15일에 사과나무모임(초 4~6년, 여)이 시작되었다.77) 10월 30일의 제10차 동반자 정기총회에서 제6대 대표동반자로 유순복(마리아)을 선임하였다.

2006년 1월 21일에 삼성산 친한 친구 모임(초 5, 남), 2월 24일에 월곡동 성당 오렌지 모임(초 6, 여), 5월 19일에 고덕동 어린이천사들 모임(초 5, 남), 같은 달에 포도나무와 가지들 모임(중 1~2. 여)이 각각 시작되었고, 5월에 대표동반자 유순복이 퇴임하여 5월 4일에 임시 대표동반자 로 김애경을 선임하였으며, 10월 15일의 제11차 동반자 정기총회에서 제7대 대표동반자로 임혜 경(로사)을 선임하였다. 2007년 2월 1일에 어린이사도직 전담자로 김애경(루시아)을 임명하여 상근하게 하였으며, 8월에 가톨릭노동장년회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⁷³⁾ 어린이사도직 동반자 모임, 서기록 2001년.

⁷⁴⁾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어린이사도직, 2003년 서울대교구 사무처 연말 보고서.

⁷⁵⁾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어린이사도직, 2004년 서울대교구 사무처 연말 보고서.

⁷⁶⁾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 보고서 2004년.

⁷⁷⁾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 보고서 2005년.

2. 국제교류



세네갈국제총회

1998년 9월 1~20일에 아프리 카 세네갈에서 34개국이 참석하 여 개최된 국제총회에 동반수녀 인 김금옥 수녀와 대표동반자인 연난이 참석하였다. 다른 나라는 대륙별로 어린이 대표들이 직접 참가하여 나라별로 교류하였고, 어린이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 어 생활 속에 하느님의 말씀이 깊 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이 국제총회는 어린이를 활동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어린이들에게 희년정신을 알 리고 함께 나눌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편지나 신문을 교환 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한국에서도 국제총회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어린이들에게 격려와 용 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는 것부터 다시 출발하기로 하였다.78) 그러나 어린이 팀 회합 등 할 일 이 많지만 동반자(수도자를 중심으로 평신도 2명)가 부족하여 회합의 운영이 어려워 관심은 있어 도 시작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고까), 한국의 어린이사도직에 동반사제가 없어 영적지도와 함께 동반하여 줄 신부를 하루빨리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어린이사도직 활동을 하던 어린이 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가톨릭노동청년회와 원활하게 연결하는 것이 숙제로 대두되었다.80) 이어 2008년 9월에 시리아에서 개최된 국제총회에 동반수녀인 심동신(베로니카) 수녀와 동반자 장영순(로사), 구재희(클라우디아)가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첫째, 활동단체ㆍ사회ㆍ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이 발언하게 하여 스스로 자신들의 대변인이 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적극 고양한다. 둘째, 어린이 삶 전반에서 평화건립의 노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린이 자신이 행동의 주역임을 주시하며, 자신들의 행동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셋째, 동반자 · 사제 · 상담 수녀·교육자 육성인의 교육과 교육방식을 상호 교류하도록 촉진한다. 넷째, 회비책정은 각국의

⁷⁸⁾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 보고서, 1998년.

⁷⁹⁾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8년 9월 17일자.

⁸⁰⁾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 보고서, 1998년.



시리아국제총회

경제수준, 생활비, 활동자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다. 다 섯째, 어린이사도직의 복음선포와 임무를 증거한다. 모든 단계의 활 동에서 활동을 통하여 어린이사도 직을 알리기와 같은 홍보활동을 확대한다. 여섯째, 아시아에서 활 동을 재개하고 창립하며, 새로 확 장하기 전에 이미 어려움에 처한 모임과 동반활동을 한다. 일곱째,

동반활동을 강화한다 등이었다.

2002년 7월 23~28일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다'(마태 5,13-14)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7차 세계청년대회에 박명자 수녀, 예진주, 엄근일,



토론토세계청년대회

강도연, 주지연, 김수현, 김수한, 조성범, 천아름, 조찬경 등 7명 이 참석하였다. 2005년 8월 16 ~21일에 독일 쾰른에서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태 2,2)라 는 주제로 개최된 제20차 세계 청년대회에 박홍선, 박종환, 정 재원, 김성대, 김수현, 이다운, 박효정, 조현숙, 김진수 등 9명 이 참석하였다.81)

^{81) &#}x27;제4절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 4. 국제교류'참조.

₩ 제7절 노동문제상담소 활동

1. IMF 이후의 상담유형 변화

명동노동문제상담소의 1998년의 상담현황은 1997년보다 약 24.3% 증가하였는데, 임금체불, 부당해고, 퇴직금, 기타, 산업재해, 노동조합, 근로조건, 노동법 등의 순서였으며, 처리방법은 구 제신청·진정, 민사소송, 행정소송 순이었다. 그러나 상담증가로 다른 사회단체와 노동단체의 실무자들의 방문이 줄었다. 1997년보다 많이 증가한 부분을 보면 노동조합, 부당해고, 체불임금, 퇴직금, 노동법 순이었는데, IMF사태로 인한 정리해고와 노동조합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노동자 들의 삶에 직결되는 노동조건과 임금문제가 많았다. 1997년보다 감소한 것들은 노동시간, 산업 재해 등이었는데,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반면, 노동조건은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권리구제에 미온 적인 태도를 보여 노동자들이 많은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산업재 해는 사업장과 건설현장의 축소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82)

1999년의 상담유형은 체불임금, 퇴직금, 기타, 산업재해, 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의 순이었 고, 처리결과는 민사소송, 구제신청 · 진정, 행정소송, 형사 순이었는데, 정규직보다는 비정규 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될 수 없어 늘 불안한 상태인 가장들이 많고, 그로 인하여 청소년 문제에도 영향을 끼쳐 청소년 범죄가 늘어가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즉, 노동문제가 아닌 생활법률상담 중 이혼, 대여금,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관계 등이 예년 에 비해 점차 늘어났으며,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늘 고용불안에 떨고 있고 임금은 30% 정도 삭감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노동조합 역시 그간의 노동조건을 조금씩 내어주고 있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가 다른 해보다 흑자를 내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오히려 해묵 은 일까지 들추어내어 정리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83)

2000년 1~9월은 총 1,885건, 상담연인원 2,093명, 상담소에 상담 외의 일들로 내방한 손님 연인원 215명, 상담실무자가 외부에 방문한 경우 80곳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법률적 조언과 해결책이 33%(624/1.885)를 차지하며. 해고(14%)와 임금(27%) 등이 높은 비

⁸²⁾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8년.

⁸³⁾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8년.

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IMF구제금융시대를 맞이한 노동계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으 로 풀이되었다. 이 밖에 노동조건 하락, 산업재해, 보험관계 등 전반적으로 노동조건들이 열 악한 상태로 전락하였다.84)

IMF구제금융사태로 1998년부터 노동문제상담소는 구제신청이나 소송건과 같은 노동력이 필요한 일들이 많아졌는데, 2000년에도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계속하여야 할 만큼 어려 웠으며, 비정규직을 보편화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노동문제상담소에 접수하면 지방노 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데, 지노위・중노위를 거쳐 승소하더라도 사용자가 꼭 행정소송 을 하여 복직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무척 어려웠다. 복직시키지 않은 상태 에서 행정소송을 하면 마냥 기다려야 하고, 복직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행정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리로 이동시켜 버렸는데. 관리직 사람을 영업직으로 보내 영업직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노동자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무방비 상태에서 법적 행동으로 권리를 확보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용자의 횡포에 대항할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일정 수준 에서 타협하거나 다른 회사로 갈 수밖에 없었으며, 기업들의 고용형태가 비정규화하는 과정 에서 노동강도가 높아져 산재와 체불임금이 많아졌다.85)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2,100건 가운데 해고가 33%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었 다. 체불임금 관련 외에도 이혼소송 등 기타상담이 증가하였는데, 당시 노동계 상황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1997년 IMF사태 직후보다 어렵고 2차 구조조정이 임박하는 등 비관적으로 보았 다.⁸⁶⁾ 2001년의 상담현황은 총 1.960건(내방상담 820건, 전화상담 1140건, 남자 1.304명, 여 자 812명)으로 기타(613건), 체불임금(268건), 퇴직금(245건), 산업재해(198건), 해고(181건), 해고 및 수당(146건) 순이었다.

명동노동문제상담소는 2001년 3월 26일에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을 이전하였다. 상담소를 이전하기 전부터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아져 노동문제상담소의 역할 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보문동으로 상담소를 이전한 뒤 노동자들이 급감하고, 실무 자들인 이무술과 서충범이 2002년 12월 25일자로 퇴직함에 따라 일반 노동상담은 외국인노 동자상담소에 처리하고, 전문적인 문제는 서울대교구에 봉사하는 노무사나 변호사 등에 의뢰 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⁸⁴⁾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2000년.

⁸⁵⁾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2000년 5월 18일자.

⁸⁶⁾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2000년 11월 16일자.

2. 남부노동문제상담소 · 구로평화의 집



남부노동문제상담소・구로 평화의 집 개소식

1999년 3월 19일에 운 영자금 문제 등으로 존 속이 어려워진 구로본 동・구로3동・시흥노동 문제상담소 등 남부지역 의 3개 상담소를 통합하 여 남부노동문제상담소 와 구로평화의 집을 개 소하고 축성미사를 최창 무 주교가 집전하였 다.87) 이어 3월 31일부 터 상담 실무자로 김하 동, 4월 1일부터 장후남 이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구로평화의 집은 서 울 남부지역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실직 때문 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이 이용하였다. 구로본 동, 구로3동, 시흥동, 여 의도성당 등의 관심 있

는 후원자들이 재정을 지원하였으며, 실직자를 위한 휴식공간으로 쉼터, 실직자 상담업무, 실 직자 재취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구인·구직연결 등을 처리하였으며, 30~50대 중·장년층 남성의 실직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용자 대다수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자들이고, 장기간의 실직에서 오는 심리적 무력감

⁸⁷⁾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9년 2월 25일자.